

## 生薑 三片과 大棗 二枚의 사용에 대한 考察 (方藥合編을 중심으로)

임영환, 국윤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ABSTRACT

### on Applying 3 Slices of *Zingiber officinale* Roscoe And 2 Pieces of *Zizyphus jujuba* Mill. (Mainly Oriented *Bangyakhappyun*)

Lim-Young Hwan\*, Kook-Yoon Bum\*  
Department of Herbal Prescrip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 Ji University, Woosan, Wonju, Gangwon, Korea

3 Slices of *Zingiber officinale* and 2 pieces of *Zizyphus jujuba* in *BangYakHapPyun* play a proper role in herbal prescription. *Zingiber officinale* is roled in protection force(衛) and *Zizyphus jujuba* is roled in management force(營). 3 Slices of *Zingiber officinale* and 2 pieces of *Zizyphus jujuba* in upper location of *BangYakHapPyun* harmonize management and protection forces(營衛氣). 3 Slices of *Zingiber officinale* and 2 pieces of *Zizyphus jujuba* in middle and lower location of *BangYakHapPyun* compromise and treat inner and outer body condition. 5 or 7 Slices of *Zingiber officinale* purge noxious vapor and alleviate *Pinellia ternata*(半夏), *Arisaema amurense*(南星) poison.

- 
- 교신저자 : 국윤범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 한의대 방제학교실
  - Tel : 033-730-0661 E-mail : kook@sangji.ac.kr
  - 접수 : 2006/ 4/ 13 수정 : 2006/ 5/ 27 채택 : 2006/ 6/ 15

Today's, 3-Yangs and 2-Yins an apriority world(先天), use 3 Slices of *Zingiber officinale* and 2 pieces of *Zizyphus jujuba*. In the future, 2-Yangs and 3-Yins in a posterior world(後天) may use 2 Slices of *Zingiber officinale* and 3 pieces of *Zizyphus jujuba*.

**Key words :** *Zingiber officinale* (生薑), *Zizyphus jujuba*(大棗), an apriority world(先天), a posterior world(後天)

## I. 緒 論

《傷寒論》<sup>1)</sup>의 54조에 “病常自汗出者 此爲營氣和 營氣和者 外不諧 以衛氣不共營氣諧和故爾 以營行脈中 衛行脈外 復發其汗 營衛和則愈 宜桂枝湯”이라 하여 生薑3兩과 大棗12枚가 사용되어 營衛를 調和하던 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方劑에서 薑三 棗二로 사용되었다.

薑三棗二와 관련하여 《醫宗損益》<sup>2)</sup>에 “薑三棗二를 『拾春章慶』에서 俗에 干三召二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薑棗의 本來의 뜻은 아니지만 干字는 干犯, 召字는 呼八의 뜻을 가진 즉 生薑의 辛熱은 足히 肝木의 生함을 干涉하고(三은 木의 生數이므로 制하면 廻土하지 않는다.), 大棗의 甘厚는 可히 心火의 質을 이루고(이는 火의 成數로 旺盛한 즉 土를 生한다.) 火는 補脾함이 明白하다. 이 또한 어찌 薑棗의 本의가 아니라 하겠는가?”라고 하여 薑三棗二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方藥合編·本草各論》에 生薑과 大棗에 대하여 “生薑은 性溫하고 穢臭를 잘 제거하며, 神氣를 밝히고 胃를 열며 嘔吐, 痰咳를 다스린다. 熱함이 필요하면 去皮하고 冷함이 필요하면 그냥 쓴다. 진초(花椒)를 使藥으로 삼고 半夏, 狼毒을 殺하며 黃芩, 黃連을 惡한다(生薑性溫能穢穢 暢神開胃吐痰咳 要熱去皮 要冷留皮 秦椒爲使 殺半夏狼毒 惡黃芩黃連 [本草]), 大棗

는 味甘하고 百藥을 調和시키며, 益氣, 養脾하나 脹滿하면 大추 먹는 일은 쉬어야 한다. 土에 속하나 火도 있다. 12經脈을 돕는다. 오래 먹으면 脾를 傷하고 濕을 돕는다. 더욱이 소아는 먹으면 좋지 않다. 「날대추」를 먹으면 여윈다. 「깍질」은 北向한 것을 태워 그 재를 달여 눈을 씻으면 어둡던 눈이 다시 밝아진다(大棗味甘和百藥 益氣養脾滿休疇 屬土有火 助十二經脈 久食損脾助濕 小兒尤不宜食(生棗) 服瘦(皮) 北向者 燒灰煎洗目 昏者復明 [本草]).<sup>3,4)</sup>”라고 기재되어 있다. 薑三棗二의 의미를 木과 土의 병증 즉 肝과 脾의 病症을 解消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고,<sup>2)</sup> 生薑과 大棗의 藥對는 營衛를 調和하고 脾胃를 調理하는 效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方劑에서 각각 또는 같이 사용<sup>5)</sup>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營衛調和, 脾胃調理, 肝脾의 病症解消 등에 사용된 方藥合編 467개의 方劑 중 124개를 使用量, 使用頻度, 病症別로 문헌을 조사하여 方劑學的인 일정한 見解를 얻었기에 報告하고자 한다.

## II. 本 論

方藥合編 467개의 方劑 중 生薑과 大棗가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된 124개의 方劑를 조사하여 使用量(Table.1, 2, 3, 4), 頻度(Table.5), 病症別

(Table.6)로 정리하여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1. 方藥合編에서의 薑三棗二가 活用된 方劑

Table.1 薑三棗二가 포함된 方劑<sup>3)</sup>

上統方劑	備考	中統方劑	備考	下統方劑	備考
地黃飲子		小續命湯		平胃散	半夏, 厚朴
加味大補湯		烏藥順氣散		蘇子導痰降氣湯	半夏, 南星, 厚朴
八寶廻春湯	半夏	葛根解肌湯		大七氣湯	
勝濕湯		五積散	半夏, 厚朴	加減胃苓湯	半夏, 厚朴
錢氏異功散		藿香正氣散	半夏, 厚朴	胃苓湯	
香砂六君子湯	半夏, 厚朴	不換金正氣散	半夏, 厚朴	倉廩湯	黃連
參朮健脾湯	厚朴	人參養胃湯	半夏, 厚朴	通經湯	厚朴
參苓白朮散		香蘇散			
鹿茸大補湯	半夏	十神湯			
雙和湯		升麻葛根湯			
十全大補湯		小柴胡湯	半夏		
人參養營湯		參蘇飲	半夏		
比和飲		陶氏升陽散火湯			
人參復脈湯		六和湯	半夏, 厚朴		
六君子湯	半夏	人參清肌散	半夏		
參芪湯		滋陰降火湯			
四柱散		香砂養胃湯	厚朴		
滋陰健脾湯	半夏	實脾散	厚朴		
參圓飲		分氣飲	半夏		
扶陽助胃湯		果附湯			
滋腎保元湯		柴陳湯	半夏		
		平陳湯	半夏, 厚朴		
		清脾飲	半夏, 厚朴		
		柴平湯	半夏, 厚朴		
		分心氣飲	半夏		
		蘇子降氣湯	半夏, 厚朴		
		加味溫膽湯	半夏		
		鷄腸散			
		養血祛風湯	半夏		
		升麻胃風湯			

		蔓荊子散			
		麗澤通氣湯			
		連附六一湯	黃連		
		厚朴溫中湯	厚朴		
		黃連湯	半夏 黃連		

주) 備考: 方劑 內 사용약제

## 2. 薑三이나 薑五만 들어가는 方劑

Table.2 薑三, 薑五, 薑五와大棗가 들어가는 方劑<sup>3)</sup>

上中下統	薑三方劑	備考	薑五方劑	備考	薑五와大棗方劑名	備考
上統	三氣飲		眞武湯		小建中湯	薑五片 棗四枚
	何人飲		補陰益氣煎		歸脾湯	
	八柱散				大防風湯	
	獨活寄生湯					
	保生湯					
	參朮飲	半夏使用				
	補虛湯					
中統	疎風湯	半夏使用	疎風活血湯	南星使用	橘皮竹茹湯	
	羌活愈風湯		理氣祛風散	半夏, 南星使用	人參芎歸湯	半夏使用
	人參敗毒散		十神湯		芎歸鱉甲散	半夏使用
			縮脾飲		加減清脾飲	半夏, 厚朴使用
			三拗湯		茯苓補心湯	半夏使用
			六安煎	半夏使用	溫膽湯	半夏使用
			杏蘇湯	半夏使用		
			七氣湯	半夏使用		
			半夏溫肺湯	半夏使用		
			芎夏湯	半夏使用		
			半夏白朮天麻湯	半夏使用		
			桔梗枳殼湯			
		赤茯苓湯	半夏使用			
		桔梗湯				
下統	舒經湯	半夏使用	導痰湯	半夏, 南星使用	大異香散	半夏使用

	檳蘇散		千緝湯	半夏, 南星使用	七物厚朴湯	厚朴使用
	羚羊角湯		定喘化痰湯	半夏, 南星使用	消脹飲子	厚朴使用
			赤小豆湯		當歸承氣湯	
			加味四七湯	半夏, 南星, 厚朴使用	活血驅風湯	半夏, 厚朴使用
			澤瀉湯			

주) 備考: 方劑 內 사용약재

3. 薑七이 들어가는 方劑와 그 외의 生薑이나 大棗가 들어가는 方劑

Table.3 薑七과 기타 方劑<sup>3)</sup>

上中下統	薑七 方劑	備 考	기타 方劑	生薑 또는 大棗 分量	備 考
上 統	茸附湯		保元湯	薑一片	
	丁香柿蒂散	半夏使用			
中 統	麻桂飲		神朮散	薑二片	
	四七湯	半夏使用	紫蘇飲	薑四片	
下 統	蒼朮防風湯		萬病五苓散	薑二片	
	芎辛導痰湯	南星 使用	清血四物湯	薑二片	
上 統			麥歸益元湯	棗一枚	棗一枚

주) 備考: 方劑 內 사용약재

4. 위의 生薑과 大棗의 사용 빈도수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4와 같다.

Table.4 生薑 大棗의 사용 빈도수

사 용 약 재	분 류	횟수/전체	횟수/전체
		비율(%)	비율(%)
薑三棗二	上中下三統	63/467	32/63
		13.5%	50.8%
薑三棗二	上 統	21/123	7/21
		17.0%	33.3%
薑三棗二	中 統	35/181	22/35
		19.3%	62.9%

薑三棗二	下 統	7/163	5/7
		4.3%	71.4%
薑 三	上中下三統	13/467	3/13
		2.8%	23.0%
薑 五	上中下三統	22/467	13/22
		4.7%	59.1%
薑五와 大棗	上中下三統	14/467	9/14
		3.0	64.3
薑 七	上中下三統	6/467	3/6
		0.1	50.0
기타 生薑 大棗	上中下三統	6/467	無
		0.1	無

주) \* :전체중의 횃수와 비율, \*\* :半夏 南星 厚朴 黃連 등을 사용한 횃수와 비율

#### 5. 生薑 大棗의 사용군별 병증을 비교하여 Table.5의 표로 나타내었다.

Table.5 生薑 大棗의 사용군별 병증비교<sup>3)</sup>

使用藥材	上中下分類	病 症	備 考
薑三棗二	上 統	中風, 左癱右瘓, 一切風虛, 泄瀉, 脾胃虛弱, 倒飽, 虛勞, 氣血俱傷, 氣血兩虛, 虛損, 胃虛 嘔吐, 咳逆, 氣虛痰盛, 氣虛 遺尿, 大便滑泄, 眩暈, 蛔厥心腹痛, 胃脘當心痛, 癰疽	주로 虛症에 의한 病症의 營衛調節
	中 統	一切風初中, 陽明經病, 傷風寒, 傷寒陰症, 四時傷寒 溫病及時令感冒, 少陽半表裏, 撮空, 傷暑, 虛勞 骨蒸, 陰虛火動, 痞悶, 陰水浮腫, 腫脹, 喘急, 瘧疾, 七情痞滯, 喘促, 心膽虛怯, 小兒遺尿, 婦人頭風, 胃風面腫, 耳中熱痛, 鼻不聞香臭, 熱鬱胃胸痛, 心腹虛冷脹痛 腹痛欲嘔吐者	和解之劑, 半夏, 厚朴의 不作用을 緩和
	下 統	痰喘 上氣, 五積六聚, 黃疸, 泄瀉腹痛, 噤口	疾病治療와 不作用의 緩和
薑 三	上中下三統	筋骨痺痛, 久瘧, 滑泄, 腳膝偏枯, 冷痺, 惡阻, 孕婦轉脘尿閉, 風中腑, 中腑中臟, 傷寒, 臂痛不舉, 風濕脚氣, 子癩	治療之劑 不作用의 緩和

薑五	上中下三統	少陰病 腹滿痛, 陰虛 外感寒熱, 痲瘧, 四肢百節流注刺痛, 口眼喎斜, 瘧疫, 暑月內傷, 傷風寒 咳嗽, 七情鬱結, 中脘 有痰水, 蓄水, 痰厥 頭痛如裂, 痞氣胸滿不利, 水結胸痞滿 頭汗, 肺癰, 中風 痰盛, 痰喘, 氣血熱生瘡, 梅核氣, 子淋	治療之劑 不作用의 緩和
薑五와 大棗	上中下三統	虛勞 裏急 腹痛, 健忘 怔忡, 鶴膝風, 咳逆, 勞瘵, 諸瘡, 勞心吐血, 心膽虛怯, 穀脹, 熱脹, 單腹 蠱脹, 陽狂奔走, 腎臟風	營衛의 調和와 半夏, 厚朴의 不作用을 緩和
薑 七	上中下三統	潮熱, 盜汗, 咳逆, 傷寒 瘧疫, 陰暑, 瘧疾, 七氣凝結, 飧泄, 痰厥頭痛	治療之劑 不作用의 緩和
기타 生薑 또는 大棗	上中下三統	痘疹, 霧露山嵐, 濕瀉, 酒醱, 子懸, 注夏病	蔘歸益元湯(棗一枚);注夏病

### III. 考 察

生薑과 大棗은 많은 方劑에서 營衛 調和, 不作用 緩和 等を 목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方藥合編 124개의 方劑를 조사하여 使用量(Table.1, 2, 3, 4), 頻度(Table.5), 病症別(Table.6) 分類를 하여 정리하였다.

生薑(*Zingiber officinale* Roscoe)은 生薑科인 生薑의 신선한 뿌리줄기이다. 效能은 解表散寒, 溫中止嘔, 化痰止咳, 解毒하며 風寒感冒, 胃寒嘔吐, 寒痰咳嗽, 半夏毒, 天南星毒, 魚蟹毒을 治療한다. 味辛하고 性溫하여 肺經에 들어가 風寒의 邪氣를 散하여 解表하는데, 辛散發表하는 효력은 비교적 약하여 感冒의 輕證에 사용하므로 外感風寒으로 인한 惡寒發熱, 頭痛鼻塞 等 症狀을 治療한다. 胃經에 들어가서 溫胃和中, 降逆止嘔시켜 嘔家의 聖藥으로 胃寒이나 痰濕이 中洲에 阻滯되어 나타나는 胃氣上逆의 惡心嘔吐에 모두 效果가 있으며, 胃熱嘔吐에도 配伍하기도 한다. 또한 溫肺止咳하는 효능이 있어 風寒으로 肺가 傷하여 나타나는 咳嗽痰多를 治療한다.<sup>6)</sup>

大棗은 갈매나무과에 속한 落葉灌木인 대추

(*Zizyphus jujuba* Mill. var. *inermis* Reher)의 성숙한 果實이다. 脾胃經으로 歸經하며 效能은 補脾和胃, 益氣生津, 調營衛, 解藥毒하며 胃虛食少, 脾弱便溏, 氣血津液不足, 營衛不和, 心悸怔忡, 婦人臟躁를 治療한다. 甘潤하고 和平하여 능히 補脾和胃하고 또한 益氣生津하며 養心安神하므로 脾胃가 허약하고 營血이 부족한 臟躁證에 쓰이는 藥물이다.<sup>6)</sup>

《藥對論》에 “生薑과 大棗의 藥對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대부분의 方劑에서 불가결한 조성부분으로 사용된다. 薑棗配伍는 《傷寒論》의 諸方, 苓桂枝湯, 旋覆代赭湯, 炙甘草湯, 麻黃連軛赤小豆湯, 吳茱萸湯 등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 後世에서의 應用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清熱, 開竅, 平肝, 熄風 等の 治法에서 쓰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모든 方劑에서 고루 選用되고 있다. 이 藥對는 辛甘配伍로 이루어졌으며 陽表陰裏와 剛柔相濟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大棗은 甘守力이 뛰어나지만 生薑을 얻어서 守가 지나치지 않게 되고, 生薑은 辛通力이 좋지만 大棗의 억제로 通이 지나치지 않게 되는 妙用이 있어 營衛를 調和시킬 뿐 아니라 脾胃를 調理하는 二重效果를 거두게 된다.”<sup>3)</sup> 《本草學》에 “生薑이

大棗를 득하면 그 자극성이緩和되고, 大棗가 生薑을 득하면 氣壅을 방지하여 脹滿되는 것을 방지하며 大棗의 甘味와 生薑의 辛味가 적절히 配合됨으로써 營衛를 조화하는 것이다.<sup>6)</sup> 《中藥大辭典》에 “成無己는 薑, 棗는 맛이 맵고 달아서 주로 비의 진액을 돌게 하고 營衛를 조화시키는데 쓴다. 약용으로 할 경우 발산시키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다. (薑棗味辛甘 專行脾之津液而和營衛 藥中用之不獨專於發散也)<sup>7)</sup> 《本草從新》에 “生薑 和中止嘔 及與大棗並用 取其行脾胃之津液 而和營衛 最爲平妥<sup>7)</sup>라 기재되고, 《本經疏證》에 “상한론, 금계요략의 兩書에 棗를 쓴 것이 58방 있으며 薑과 함께 쓰지 않은 것은 11방 뿐이며 대체로 薑과 棗를 함께 쓰며 和營衛하는 主材로서 薑으로 主衛하며 棗로 主營한다”고 기재되어 있고<sup>7)</sup>, 《바른방제학》에서 “桂枝湯이 衛氣不固로 진액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桂枝와 生薑, 營分을 보호하는 芍藥과 大棗, 약성을 조화하는 甘草가 配劑되어 있다.”<sup>8)</sup>, 《藥對論》에 “일반적으로 이 藥對는 外感表證의 치료에 주로 營衛를 調和하는 작용을 이용하며 方으로는 桂枝湯, 大靑龍湯, 參蘇飲, 柴葛解肌湯 등이 있고 內傷雜證에는 脾胃를 調理하는데 旋覆代赭湯, 平胃散, 四神丸 등이 있고 그 밖에 六君子湯, 歸脾湯 등의 補益劑에서도 응용하고 있다. 薑棗의 配伍가 비록 어느 한 方劑의 주요 부분은 아니지만 이 藥對는 營衛를 調和하고 脾胃를 調理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方劑의 빠질 수 없는 조성성분이 될 뿐 아니라 뛰어난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sup>5)</sup> 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가들은 薑棗가 營衛를 調和하고 刺戟성을緩和하는 데 사용된다고 인식하였다.

生薑이 위와 같이 大棗와 配伍되어 營衛를 調和하기도 하지만 薑炙하여 그 寒性を制하고 和胃止嘔의 효능을 강하게 하는데 黃連, 竹茹 등의 寒性藥은 薑製를 하면 그 寒성이緩和되고 和胃止嘔 등의 작용을 강화한다. 또한, 부작용을緩和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厚朴은 咽喉에 대하여 일정

한 자극성이 있는데 薑炙하면 그 자극성을緩和시키고 溫中化濕의 작용을 강하게 한다. 보통 薑汁製하는 약물은 半夏, 南星, 黃連, 厚朴 등의 약물이다.<sup>6)</sup>

生薑과 大棗가 들어 있는 方劑를 病症과 頻度로 分類하면 아래와 같다.(Table.4, Table.6)

薑三棗二가 活用된 上統 方劑는 地黃飮子, 加味大補湯, 八寶迴春湯, 勝濕湯, 錢氏異功散, 香砂六君子湯, 參朮健脾湯, 參苓白朮散, 鹿茸大補湯, 雙和湯, 十全大補湯, 人參養營湯, 比和飲, 人參復脈湯, 六君子湯, 參芪湯, 四柱散, 滋陰健脾湯, 參圓飲, 扶陽助胃湯, 滋腎保元湯 등이 있으며, 병증은 中風, 左癱右瘓, 一切風虛, 泄瀉, 脾胃虛弱, 倒飽, 虛勞, 氣血俱傷, 氣血兩虛, 虛損, 胃虛 嘔吐, 咳逆, 氣虛痰盛, 氣虛 遺尿, 大便滑泄, 眩暈, 蛔厥心腹痛, 胃脘當心痛, 癰疽 등이 있다. 이는 주로 虛症으로 인한 諸般疾患에 營衛의 調和와 半夏, 厚朴의 不作用을緩和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六君子湯에서와 같이 虛症에 痰(邪氣)이 實한 病症에 活用되기도 하였다. 上統의 123方劑 중 21方(약17.0%)에서 사용되며 營衛를 調和하여 虛證疾病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었고, 21方 중 7方(약33.3%)에서 半夏 厚朴 등의 不作用의緩和를 목표로 사용하였다. (Table.1)

薑三棗二가 活用된 中統 方劑는 小續命湯, 烏藥順氣散, 葛根解肌湯, 五積散, 藿香正氣散, 不換金正氣散, 人參養胃湯, 香蘇散, 十神湯, 升麻葛根湯, 小柴胡湯, 參蘇飲, 陶氏升陽散火湯, 六和湯, 人參清肌散, 滋陰降火湯, 香砂養胃湯, 實脾散, 分氣飲, 果附湯, 柴陳湯, 平陳湯, 清脾飲, 柴平湯, 分心氣飲, 蘇子降氣湯, 加味溫膽湯, 鷄腸散, 養血祛風湯, 升麻胃風湯, 蔓荊子散, 麗, 澤通氣湯, 連附六一湯, 厚朴溫中湯, 黃連湯 등이 있으며, 병증은 一切風初中, 陽明經病, 傷風寒, 傷寒陰症, 四時傷寒 溫病及時令感冒, 少陽半表裏, 撮空, 傷暑, 虛勞 骨蒸, 陰虛火動, 痞悶, 陰水浮腫, 腫脹, 喘急, 瘧疾, 七情痞滯, 喘促, 心膽虛怯, 小兒遺尿, 婦人頭風, 胃風面腫, 耳中熱痛, 鼻不聞香臭, 熱鬱胃胸痛, 心腹虛冷脹痛 腹痛欲嘔吐者



等이 있다. 이는 주로 和解之劑의 의미를 가지는 方劑가 많고 半夏, 厚朴, 黃連의 不作用을 緩和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中統의 181方劑 중 35方(약19.3%)에서 사용되며, 35方 중 22方(62.9%)에서 半夏, 厚朴 黃連 等이 사용되어 주로 和解之劑의 의미와 營衛調和 및 不作用의 緩和 위주로 사용되었다.(Table.1)

薑三棗二가 活用된 下統 方劑는 平胃散, 蘇子導痰降氣湯, 大七氣湯, 加減胃苓湯, 胃苓湯, 倉廩湯, 通經湯 等이 있으며, 病증은 痰喘 上氣, 五積六聚, 黃疸, 泄瀉腹痛, 噤口 等이 있다.

이는 治療之劑의 意味가 있다. 半夏 南星 厚朴 黃連 等으로 질병치료와 不作用의 緩和를 위주로 사용되었다. 下統의 163方劑 중 7方에서 사용(약 4.3%)되며 7方 중 5方(약71.4%)에서 半夏 南星 厚朴 黃連 等으로 질병치료와 不作用의 緩和를 위주로 사용되었다. (Table.1)

薑三만 活用된 上中下三統 方劑는 三氣飲, 何人飲, 八柱散, 獨活寄生湯, 保生湯, 蓼朮飲, 補虛湯, 疎風湯, 羌活愈風湯, 人參敗毒散, 舒經湯, 檳蘇散, 羚羊角湯 等이 있으며, 病증은 筋骨痺痛, 久瘧, 滑泄, 腳膝偏枯, 冷痺, 惡阻, 孕婦轉腰尿閉, 風中腑, 中腑中臟, 傷寒, 臂痛不舉, 風濕脚氣, 子癰 等이 있다. 주로 治療之劑로 活用되며 半夏가 사용된 方劑는 不作用의 緩和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總 467方劑 중 13方(약2.8%)에서 사용되며, 13方 중 3方(약 23.0%)에서 半夏가 사용되었다.(Table.3)

薑五가 活用된 上中下三統 方劑는 眞武湯, 補陰益氣煎, 疎風活血湯, 理氣祛風散, 十神湯, 縮脾飲, 三拗湯, 六安煎, 杏蘇湯, 七氣湯, 半夏溫肺湯, 芎夏湯, 半夏白朮天麻湯, 桔梗枳殼湯, 赤茯苓湯, 桔梗湯, 導痰湯, 千縉湯, 定喘化痰湯, 赤小豆湯, 加味四七湯, 澤瀉湯 等이 있으며, 病증은 少陰病 腹滿痛, 陰虛外感寒熱, 瘧瘧, 四肢百節流注刺痛, 口眼喎斜, 癩疫, 暑月內傷, 傷風寒 咳嗽, 七情鬱結, 中脘 有痰水, 蓄水, 痰厥 頭痛如裂, 痞氣胸滿不利, 水結胸痞滿 頭汗, 肺癰, 中風 痰盛, 痰喘, 氣血熱生瘡, 梅核氣, 子

淋 等이 있다. 總 467方劑 중 22方(약4.7%)이 사용되며, 22方 중 13方(약59.1%)에서 半夏, 南星, 厚朴이 사용되었다. (Table.3)

薑五와 大棗가 活用된 上中下三統 方劑는 小建中湯, 歸脾湯, 大防風湯, 橘皮竹茹湯, 人參芎歸湯, 芎歸鱉甲散, 加減清脾飲, 茯苓補心湯, 溫膽湯, 大異香散, 七物厚朴湯, 消脹飲子, 當歸承氣湯, 活血驅風湯 等이 있으며, 病증은 虛勞 裏急 腹痛, 健忘 怔忡, 鶴膝風, 咳逆, 勞瘧, 諸瘧, 勞心吐血, 心膽虛怯, 穀脹, 熱脹, 單腹 蠱脹, 陽狂奔走, 腎臟風 等이 있다. 虛症의 疾患에 營衛의 調和와 半夏, 厚朴의 不作用을 緩和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總 467方劑 중 6方(약0.1%)에서 사용되며 6方 중 3方(50.0%)에서 半夏가 사용되었다. (Table.3)

薑七이 活用된 上中下三統 方劑는 茸附湯, 丁香柿蒂散, 麻桂飲, 四七湯, 蒼朮防風湯, 芎辛導痰湯 等이 있으며, 病증은 潮熱, 盜汗, 咳逆, 傷寒 癩疫, 陰暑, 瘧疾, 七氣凝結, 飧泄, 痰厥頭痛 等이 있다. 주로 治療之劑로 活用되며 半夏가 사용된 方劑는 不作用의 緩和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總 467方劑 중 6方(약0.1%)에서 사용되며 6方 중 3方(50.0%)에서 半夏가 사용되었다. (Table.4)

기타 生薑 또는 大棗가 活用된 上中下三統 方劑는 保元湯, 神朮散, 萬病五苓散, 清血四物湯, 紫蘇飲, 蓼歸益元湯 等이 있으며, 病증은 痘疹, 霧露山嵐, 濕瀉, 酒醴, 子懸, 注夏病 等이 있다. 467方劑 중 6方(약0.1%)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大棗一枚만 사용하는 蓼歸益元湯은 注夏病에 活用한다. (Table.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上統에 사용된 薑三棗二의 方劑는 주로 營衛調和를 위주로 補益하는 작용을 하며, 中統에 사용된 薑三棗二의 方劑는 和解之劑의 작용과 不作用의 緩和 等を 위주로 질병을 치료하고, 下統의 薑三棗二의 方劑가 많이 활용되지 않은 것은 上統의 營衛調和와 中統의 和解의 의미의 개념은 거의 없고 단순히 질병치료만 하기 때문에 사용예가 적다고 할 수 있다. 薑五와 薑七

이 사용된 方劑는 주로 實證의 질병치료에 活用되며, 아울러 半夏와 南星 등의 毒性을 緩和시키는 작용을 한다.

薑三棗二는 주로 營衛를 調和하는데 이는 한동석의 《우주변화의 원리》<sup>9)</sup>에서 말한 先天時代의 三天兩地思想과 薑三棗二의 三陽二陰과도 一脈相通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後天時代에는 薑二棗三이 三地兩天과 대응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것은 此後에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V. 結 論

方藥合編 467개의 方劑 중 生薑과 大棗가 각각 또는 동시에 活用된 124개의 方劑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1. 方藥合編에 사용된 薑三棗二의 生薑은 衛에, 大棗는 營에 작용한다.
2. 薑三棗二가 配伍된 方劑는 上統에서 주로 補益의 의미와 營衛調和의 작용을 하며 또한 虛症에 痰이 있는 경우에도 응용되었다.
3. 薑三棗二가 配伍된 方劑는 中統과 下統에서 주로 和解와 治療之劑로 응용되고, 半夏 厚朴 黃連 南星 等의 不作用의 緩和作用을 한다.
4. 薑五와 薑七이 配伍된 方劑는 주로 實證의 치료에 活用되며 半夏, 南星毒을 緩和시키는 作用을 한다.
5. 先天時代인 三天兩地思想과 薑三棗二의 三陽二陰은 相通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後天時代에는 薑二棗三이 三地兩天과 대응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 參考文獻

1. 채인식. 상한론역전. 서울:고문사. 1001:55.
2. 황도연. 의종손익. 서울:의약사. 1976:37.
3. 신민교, 영림사편집부 공편. 신증방약합편. 서울:영림사. 2002:542-543,554. 121-126, 128, 130-133, 137-141, 146-147, 149-151, 153, 156, 160-162, 165-169, 171, 175, 178-179, 181, 183-205, 207-208, 210-212, 215-228, 230, 234-235, 238-248, 250, 259, 269-270, 275-276, 278-281, 283-284, 288, 294-297, 301, 304, 309-311, 316, 318-319.
4. i-Book 방약합편. 지식공학. ISBN 89-9511 27-5-1.
5. 노영호. 약대론. 서울:일증사. 1996:223-224.
6. 전국한 의과대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영림사. 2004:129,172-174, 588-599.
7.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외. 증약대사전 II, 서울:도서출판 정담. 989-992, 2194-2201.
8. 강순수. 바른方劑학. 서울:대성문화사. 1996: 79-81.
9.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행림출판. 1985: 95-133, 219, 295-304.